

KERI Brief

중국경제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kim@keri.org)

중국은 저가제품의 수출을 줄이고 신기술 바탕으로 내수를 강화하는 등 대내적으로 신창타이(新常态)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중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시켜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는 대중국 교역에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반적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수출품목의 비교우위가 변화함에 따라 한-중 무역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수출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수지 흑자액이 감소하였다. 대중국 주요 10대 수출 품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의 제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으로 인한 내

수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중 교역에서 많은 무역흑자를 나타낸 중간재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對)중국 수출에 대해서 범용제품보다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부품과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용 최종재 수출에 특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RCEP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1. 논의 배경

□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이후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는 ‘신창타이(新常态)’의 추진을 언급하며 중국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함.¹⁾

- 신창타이의 특징으로 중국은 더 이상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 개방을 더욱 추진할 것이며 안정 속 발전을 정책 기조로 유지

- 그동안 대규모 투자와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态)는 경제성장의 속도보다는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 신창타이는 변화하는 중국경제의 키워드로서 소비, 투자, 수출, 산업조직, 생산요소, 경쟁구조, 환경제약, 리스크, 자원배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표 1) 참고.

○ 소비 측면에서는 개성화되고 다양한 소비 형태가 늘어날 것임.

○ 수출 측면에서는 중전의 저가 상품에서 탈피하여 고기술 상품을 통해 해외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인구노령화, 농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3차 산업이 확대되면서 맞춤형, 지능형, 전문형 업종이 진화할 것으로 전망

1)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신창타이를 언급하고 소개함. 이와 함께 중국 리커창 총리도 신창타이 시대의 도래를 강조함. 신창타이는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표 1] 중국 신창타이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소비수요	• 개성화 다양화 소비가 주류
투자수요	• 신기술, 신상품, 신업종, 신비즈니스모델에 투자기회 증가
수출/수입	• 저비용 우위의 변화, 고기술 수입 및 대규모 해외진출
산업조직	• 신흥산업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확대 / 생산 소형화, 지능화, 전문화
생산요소	• 인구노령화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및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발전 추구
시장경쟁	• 시장경쟁이 점진적으로 제품 고급화, 차별화로 변화
자원환경 제약	• 환경 소모적 발전에서 녹색저탄소·순환발전으로 변화
경제위험 해소	• 과대차입, 버블로 인한 위험 일정기간 지속, 그러나 총체적 제어가능
자원배분 및 거시조정	• 생산과잉 해소, 시장시스템을 통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 모색

자료: 이봉걸,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No. 7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2015, 조용원, “중국 신창타이(新常态) 체제하의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분석 2015년 9월.

□ 한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중국경제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급진적으로 나타남.

- 2010년 중반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4년부터 위안화는 평가절하가 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등락을 거듭

- 특히 지난 8월 중순 중국 인민은행은 사흘간 위안화를 4.7% 절하하는 조치를 취함.

□ 신창타이(新常态) 추진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중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

-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 내수시장의 성장과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반적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²⁾

-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변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을 방안을 논의하고 동시에 전반적 대외 수출이 급감하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할 방향을 찾고자 함.

2. 중국경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1) 중국경제의 대내적 변화

□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중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1년 20.3%에서 2012년 7.9%로 크게 하락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2) 조용원, “중국 신창타이(新常态) 체제하의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분석, 2015년 9월.

[표 2] 중국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1~6월)
수출증가율	20.3	7.9	7.8	6	2.5 ^{a)}
경제성장률	9.45	7.73	7.69	7.37	6.98

주: a) 2015년 전망치

자료: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5년 3분기, 한국경제연구원 내부자료

[표 3] 중국의 무역 형태별 수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2005	2011	2012	2013	2014
일반무역	2,796 (42.4)	10,076 (57.8)	10,244 (56.2)	11,097 (56.9)	11,095 (56.6)
가공무역	2,769 (42.0)	4,707 (27.0)	4,824 (26.5)	4,982 (25.5)	5,254 (26.8)
보세무역	657 (10.0)	2,252 (12.9)	2,751 (15.1)	3,073 (15.8)	2,917 (14.9)
기타	377 (5.7)	400 (2.3)	385 (2.1)	351 (1.8)	337 (1.7)
전체	6,600 (100)	17,435 (100)	18,184 (100)	19,503 (100)	19,603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 수입시장 연구」 2015년 6월.

- 중국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는 7%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의 부채는 경제성장 속도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2/4분기 기준, GDP대비 중국기업의 부채 비율은 96%까지 치솟음.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반무역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의 수입액은 감소함.

- 중국의 전체 무역량에서 일반무역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42.4%에서 2014년 56.6%로 증가한 반면 동기간 가공무역은 42.0%에서 26.8%로 감소함.

□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중간재에 대한 자급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가공단계별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중간재 부품이나 반제품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2007년 중간재의 수입액은 1,863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3.4%를 차지했으나, 2014년 3,939억 달러 37.2%로 하락

- 그러나 동기간 1차 산품이나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증가함.

○ 1차 산품의 수입비중은 38.4% → 41.8%, 소비재의 경우는 5.1% → 9.7%

□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꾸준히 향상되어 부품·소재·장비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음.

- 더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소재산업의 대(對)세계 무역특화지수가 꾸준히 상승했으며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³⁾

○ 2010년 이후 중국의 대(對)세계 무역특화지수가 양으로 전환되었고, 부품·소재 등에서 수출량이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고 있음.⁴⁾

3) 복득규 외(2013), 중국 부품소재장비SW 산업의 경쟁력 및 생태계 분석, 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4) 2010년 중국의 세계 부품·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11.0%로 미국(10.6%)과 일본(7.7%)을 앞섬.

[표 4] 중국 내수용 수입제품의 가공단계별 구분

(단위: 억 달러, %)

	2007년	2013년	2014년
1차 상품	1,689 (38.4)	4,652 (44.6)	4,417 (41.8)
자본재	552 (12.9)	1,150 (11.0)	1,192 (11.3)
소비재	217 (5.1)	888 (8.5)	1,029 (9.7)
중간재	1,863 (43.4)	3,738 (35.8)	3,939 (37.2)
- 부품	645 (15.0)	1,316 (12.6)	1,500 (14.2)
- 반제품	1,218 (28.4)	2,422 (23.2)	2,439 (23.1)
합계	4,287 (100)	10,430 (100)	10,579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 수입시장 연구」 2015년 6월.

(2)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 2010년 6월 이전까지 6.8 수준을 유지하였던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은 이후 지속적 감소세에 있다가 2014년 1월 6.05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13일 사흘간 위안화를 6.116에서 6.398로 4.7% 절하⁵⁾

- 중국 위안화 환율은 종전까지는 인민은행이 전일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매매기준율을 고시했었는데 금년 8월 11일 이후에는 시장에서 전일 증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⁶⁾

□ 즉, 여전히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도 중국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 주식시장 등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달러 대비 위안화의 추가 절하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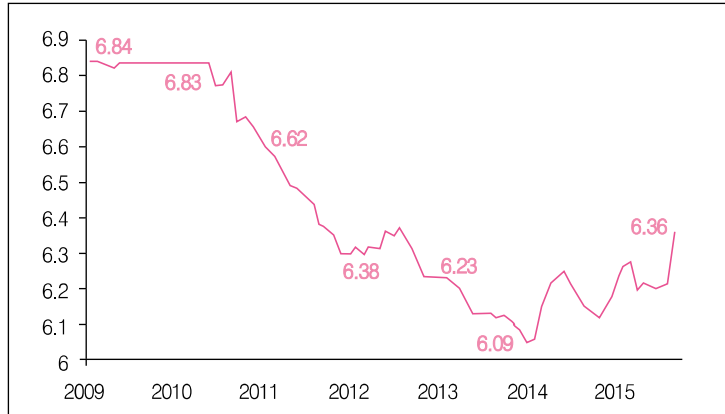
- 위안화 절하는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자동적으로 높여주는 힘으로 작용

5)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입장에서는 달러로 표시된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음.

6) 지만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주체 세미나, 2015년 9월 21일.

[그림 1] 위안화 환율 추이

(단위: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자료: CEIC DB

□ 특히 향후 미 금리 인상 시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평가절하될 가능성 높음.⁷⁾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의장인 재닛 옐런이 연내 미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
- 미국이 금년 안에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는 낮아지게 됨.

7) 중국 화폐정책위원회의 위원인 황이핑(黃益平·) 중국 베이징대학교 중국경제연구센터 교수는 향후 위안화의 추가 절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조선일보, “중 경제둔화는 중진국 함정” 2015년 9월 22일자).

3.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 특징

(1) 우리나라 대(對)중국 수출입 규모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출액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 20년 이상 무역흑자를 기록함.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량은 1992년 64조 달러에서 2014년 2,354달러로 약 37배 증가함.
-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수출국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대(對)중국 수출액은 1992년에 27억 달러에서 2014년 1,453억 달러로 22년간 53배 증가함.

중국경제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같은 기간 대(對)중국 수입액은 37조 달러에서 901달러로 24배 증가함.
- 1992년 이후 대(對)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옴.

-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200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
○ 2014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수출액이 약 6억 달러 감소하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표 5] 우리나라와 중국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입	수출(A)	수입(B)	수지차(A-B)
1992	64	27	37	-10
1993	91	52	39	13
1994	117	62	55	7
1995	165	91	74	17
1996	199	114	85	29
1997	236	136	100	36
1998	185	120	65	55
1999	226	137	89	48
2000	313	185	128	57
2001	315	182	133	49
2002	412	238	174	64
2003	570	351	219	132
2004	794	498	296	202
2005	1,005	619	386	233
2006	1,181	695	486	209
2007	1,450	820	630	190
2008	1,683	914	769	145
2009	1,409	867	542	325
2010	1,884	1,168	716	452
2011	2,206	1,342	864	478
2012	2,151	1,343	808	535
2013	2,290	1,459	831	628
2014	2,354	1,453	901	552
2015(1~9월)	1,689	1,021	668	353

주1: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액 끝자리 차가 나타날 수 있음.

주2: 2015년의 경우에는 1~9월까지의 누적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 통계 DB

(2)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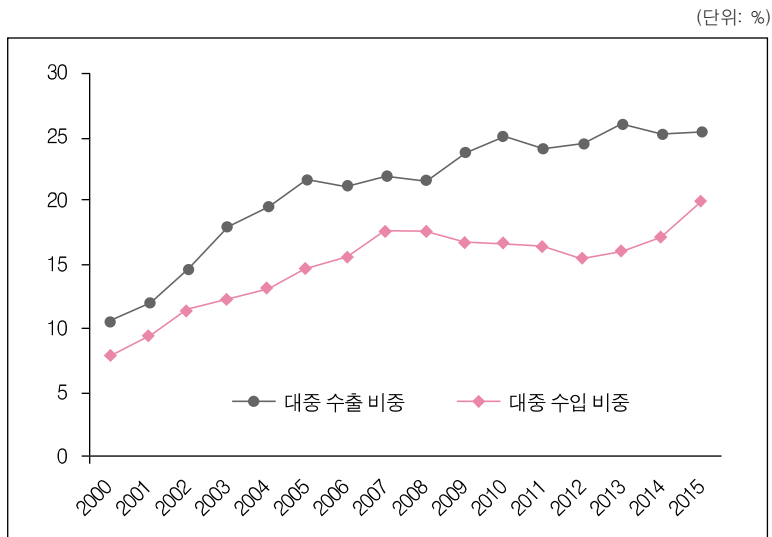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전체무역에서 대(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 왔음.

- 2000년 10.7%였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005년 21.8%로 크게 상승한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또한 대(對)중국 수입도 2000년 8.0%에서 2007년 17.7%까지 급속히 증가했다가 이후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외 수입 비중 중 가장 높은 국가임.

[그림 2]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주: 2015년의 경우에는 1~9월까지의 누적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 통계 DB

<p>(3)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p> <p>□ 근년에 우리나라 대(對)중국 주요 수출 상품액이 감소함.</p> <p>- 석유제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표 5 참조).</p> <p>○ 석유제품 수출은 2012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14년 7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도 동기간 206억 달러에서 2014년 166억 달러로 약 19.4% 감소⁸⁾</p> <p>- 그러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음.</p> <p>○ 반도체는 2014년 대(對)중국 수출상품 1위로 올라섰으며, 최근 3년 평균 18.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고 있음.</p>	<p>- 종합적으로 보면, 2014년의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p> <p>○ 2014년도에 전자응용기기, 합성수지, 기초유분, 기구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섬.</p> <p>-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대(對)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p> <p>○ 특히, 석유제품과 전자응용기기의 증가율 감소가 크게 나타남.</p>
	<p>8) 그러나 악화추세에 있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출량은 올 1~9월 기간에는 증가</p>

[표 6] 대(對)중국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4,323	0.1	145,870	2.8	145,288	-0.4	102,064	-3.8
반도체	17,878 (2)	13.3	21,670 (1)	21.2	26,156 (1)	20.7	20,796 (1)	14.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598 (1)	1.5	18,562 (2)	-9.9	16,572 (2)	-10.7	16,859 (2)	35.1
석유제품	9,977 (3)	-9.3	8,380 (3)	-16	7,000 (4)	-16.5	3,422 (7)	-35.7
전자응용기기	5,168 (5)	135.6	7,881 (4)	52.5	6,841 (5)	-13.2	1,672 (10)	-65.8
합성수지	7,113 (4)	-3.6	7,826 (5)	8.6	7,564 (3)	-2.1	4,867 (4)	-14.4
석유화학 중간원료	4,560 (6)	19.8	6,213 (6)	36.2	6,727 (6)	8.3	4,304 (5)	-11.0
자동차부품	4,458 (7)	1.3	5,570 (7)	25	6,090 (8)	9.3	4,096 (6)	-8.4
무선통신기기	4,007 (8)	-6.3	5,164 (8)	28.9	6,362 (7)	23.2	4,948 (3)	3.2
기초유분	3,956 (9)	22.1	4,462 (9)	12.8	4,211 (9)	-5.6	1,985 (9)	-39.5
기구부품	2,782 (10)	20.2	3,425 (10)	23.1	3,228 (10)	-5.8	2,073 (8)	-14.0

주: 괄호()안은 금액기준의 순위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 통계 DB

(4) 대(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

□ 대(對)중국으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대(對)중국 수입액은 2012년 808억 달러에서 2014년 901억 달러로 증가함.

○ 2015년 1~9월까지의 대중국 수입액은 6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 지난해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입액이 증가함.

○ 2014년에 주요 상품 수입액 증가율을 전년도 대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 113.5%, 반도체 24.5% 증가함.

○ 그러나 2015년 1~9월 기간 동안 반도체의 수입액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컴퓨터와 철강판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자 수입 품목으로 지난해에 수출이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흥미롭게도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함.

○ 이러한 교역 품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

- 한편, 정전(static electric) 기기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60.9% 크게 감소

[표 7] 대(對)중국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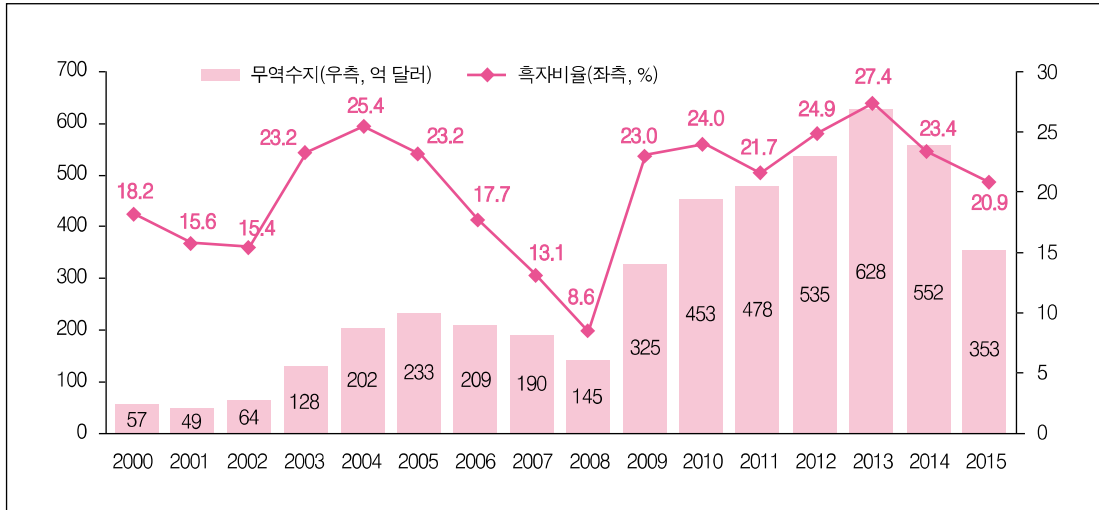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0,785	-6.5	83,053	2.8	90,082	8.5	66,751	1.6
반도체	6,051 (1)	-8.9	6,520 (1)	7.8	8,115 (1)	24.5	8,006 (1)	45.4
컴퓨터	5,605 (2)	-5.6	5,400 (2)	-3.7	5,785 (3)	7.1	4,084 (3)	-1.9
철강판	4,559 (3)	-17.7	4,060 (3)	-10.9	5,740 (4)	41.4	3,270 (4)	-26.6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444 (5)	24.2	3,903 (4)	13.3	1,526 (10)	-60.9	979 (10)	-15.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733 (4)	-11.4	3,458 (5)	-7.4	3,597 (5)	4	2,807 (5)	2.8
의류	3,097 (6)	-10.2	3,406 (6)	10	3,518 (6)	3.3	2,497 (6)	-3.3
무선통신기기	2,844 (8)	-38.9	3,164 (7)	11.2	6,757 (2)	113.5	5,695 (2)	33.0
정밀화학원료	2,879 (7)	-6.5	2,819 (8)	-2.1	3,192 (7)	13.3	2,391 (7)	1.8
기구부품	1,978 (9)	11.9	2,303 (9)	16.4	2,197 (8)	-4.6	1,372 (9)	-16.0
전선	1,956 (10)	1.6	2,053 (10)	5	2,119 (9)	3.2	1,574 (8)	-0.9

주: 괄호()안은 금액기준의 순위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 통계 DB

[그림 3]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

(단위: %)



주1: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액 끝자리 차가 나타날 수 있음.

주2: 2015년의 경우에는 1~9월까지의 누적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 통계 DB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이 증가하면서 수출
입 의존도가 높아짐.

- 2000년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57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약 11배로 급속하게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비율은 28.9%로 사상최고기록

○ 그러나 2014년에는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552억 달러로 감소했고 무역수지 흑자비율도 23.4%로 하락했고, 올해 1~9월 기간 동안에도 약 20.9%를 나타내 감소세가 지속됨.

□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대외충격으로 작용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2위인 미국시장의 2배가 넘음.
- 한편, 근년에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일본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EU 비중(9% 내외)과 ASEAN 비중(14~15%)은 큰 변동이 없음.

□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나타내는 주요한 원인은 주로 중간재 교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일차 상품과 소비재 부문에 대해서는 중국에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음.⁹⁾
 - 2013년 기준, 중국에 대해 일차 상품 무역적자는 23억 달러였고, 소비재의 경우에는 63억 달러였음.
- 그러나 중간재에 대해서는 546억 달러의 많은 무역흑자를 보임.

9) 양평섭, “대외경제정책(한·중 경제관계)”, 국립외교원 중국 연구센터 전문가 워크숍, 2014년 12월 28~29일.

[표 8] 한국 수출의 주요 수출시장 의존도

(단위: %)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8월)
중국	24.5	26.1	25.4	25.4
미국	10.7	11.1	12.3	13.2
일본	7.1	6.2	5.6	4.9
EU	9	8.7	9	8.7
ASEAN	14.4	14.7	14.8	14.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 통계 DB

4. 중국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 분석

(1) 신창타이체제하의 중국경제 내부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

□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으로 인한 내수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품목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국경제가 신산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범용제품보다는 다양한 고급 제품의 수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

○ 기술적 우위가 있는 핵심부품과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에 집중하여 수출

- 중국의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상품 수출에 역점을 둘 필요

○ 중국의 3차 산업의 비중은 1980년에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2014년 40% 중반에 이름.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필요

□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으로 인한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중국 대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중국 내에서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중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 장점이 약화되면서 투자가 감소¹⁰⁾

□ 한편, 신창타이 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소재 부품 등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해외수입을 줄이는 추세로 전환¹¹⁾

-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물량은 감소할 것임.

○ 예를 들어,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중국의 자급률이 1% 상승하면 (여타조건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0.47% 감소¹²⁾

10) 중국은 최근 5년간 평균임금이 35% 상승(‘중국경제 신창타이시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11)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012년 1.9년에서 2014년 1.4년으로 줄어들(한국과학기술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경제 신창타이시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연구” 2015년 9월 14일자 재인용)

12) 조용원(2015)

<p>(2)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p> <p>□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¹³⁾</p> <p>- 미국, 일본, 유럽, ASEAN,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p>	<p>-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경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¹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6단위 기준 미국 전체 수입 품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2010년 0.290에서 2014년 0.346으로 증가 ○ 특히 동기간 휴대폰 및 부품에서는 0.680에서 0.845, 조선에서는 0.339에서 0.558, 그리고 석유 제품에서는 0.163에서 0.643 상승 <p>13)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원화의 상대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화대비 위안화 가치의 방향성은 상대적 변화폭에 따라 달라질 것임.</p> <p>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2015),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과 한중 수출 경합 비교”, Trade Brief No. 29 2015년 5월 8일.</p>
---	---

[표 9]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경합도

2010	2011	2012	2013	2014
0,290	0,305	0,334	0,344	0,346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9]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산업수준)

국가	부품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부품	3.14	2.41	2.07	1.82	1.50
	통신기기	1.82	2.24	2.24	1.72	1.57
중국	부품	1.10	1.36	1.53	1.56	1.68
	통신기기	1.81	1.75	2.01	2.02	2.02

자료: 최남석, 「한국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2015년 8월.

-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부품 및 정보통신기기의 경쟁이 치열해짐.¹⁵⁾
 - 일본 부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비교우위지수¹⁶⁾는 2010년 3.14에서 2014년 1.50으로 하락한 반면 동기간 중국은 1.10에서 1.68로 우리나라를 추월
 - 한편, 동기간 통신기기의 시장비교우위지수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서 2014년 중국 2.02로 우리나라 1.57보다 높음.
-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일정하다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는 대(對)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원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이 높아져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
 - 반면, 위안화-원화 가치변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여타조건이 불변이라면) 수입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 높음.

5. 결론 및 시사점

- 중국경제의 성장을 둔화와 자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신창타이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 달러에서 2014년 552억 달러로 약 12% 감소함.
 - 2015년 1~9월 기간의 무역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1%로 감소추세가 지속
- 특히 교역량이 많았던 중간재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 추진으로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으로 대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간재 품목의 고도화가 필요¹⁷⁾
 - 한·중 간 기술격차가 2012년 1.9년에서 2014년 1.4년으로 좁혀짐.
 - 한편 대(對)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줄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구조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

15) 최남석(2015),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16) 산업수준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최남석, 2015 참고).

17) 이는 중국이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것과 궤를 같이함.

□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

- 2014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총수입에서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0.1%)이지만 내수용 수입에서는 6%의 비중(5위)에 머물러 있음.

- 중국의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용 최종재 수출에 특화할 필요

□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중국 제품과의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과 품질력 향상이 필요

- 중국은 범용제품의 수출보다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을 줄이고자 하지만 여전히 한·중 간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교역품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품목에 대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세울 필요성

□ 한중 FTA 발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¹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무역 흑자 추세를 유지할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추진하여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

- 선진국일수록 GDP에서 1, 2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수출

- 한중 FTA, RCEP 등으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

- 글로벌 가치 사슬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생산 공정 특화

- 상대적 비교우위가 높은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한·중 간 수직적 생산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보완구조

18)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